

상록탑

한국에서 예술을 꿈꾼다는 것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Martin Seligman)은 생소한 실험 하나를 시도했다. 전기가 통하는 우리 안에 개를 넣고 주기적으로 전기충격을 줬다. 이때 개는 우리를 빠져나갈 수 없도록 했다. 그렇게 24시간 뒤, 셀리그만은 개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고 다시 전기충격을 줬다. 충분히 도망칠 수 있음에도 개는 가만히 웅크린 채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해도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는 무기력이 학습된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학습된 무기력’을 느낀다. 예술의 길을 꿈꾸는 젊은 학생들에게 “한국은 안 돼”, “유학은 어디로 계획하고 있냐”는 이야기가 당연하게 나온다. 한마디로 한국에선 예술로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다.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다. 예비 예술가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 무기력을 학습하는 게 언제부터인가 일상이 돼버렸다.

최근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세상에 알려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예술분야 학생들의 무기력을 가중시킨다. 박근혜 정부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정권에 비판적인 예술인이나 단체들을 지원하지 못하게 했다. 문화예술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윤희진
사회·문화부 부장

“
블랙리스트, 무기력에서
탈피할 전화위복이 되길

“
지변을 다져야 할 정부가 오히려 뒤로는 문화예술계를 ‘죽이는’ 짓을 하고 있었다니, 오히려 국가적 손실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는 현업 예술가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서 예술을 하고자 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더없이 치명적인 상처였을 것이다.

한국의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단체와 기관의 대처도 실험실 개에게 주어지는 전기충격처럼 무력하다. 23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사과문을 올렸지만, 당장에 정부가 개혁 수준의 변화를 감행하거나, 예술가들의 힘든 환경이 단번에 바뀌리라고는 감히 기대하기

어렵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블랙리스트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송수근 장관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무기력하게만 있는 것이 답일까. 이런 시국에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진정한’ 예술가들은 예술 전공생들에겐 한 가닥 빛이다. 블랙리스트를 영광의 명단이라 여기는 사람들,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없으면 블랙리스트가 아니라고 정당성을 의심하는 사람들. 이준익 영화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모든 억압은 변화의 시작점”이라며 “정치적 논란, 지원차별, 블랙리스트 현상은 예술계의 급성장을 예고한다”고 말했다.

광화문 시위에 함께하는 예술 활동을 통해 시민들은 예술에 대한 관심을 갖고, 문화연대는 ‘문화정책 대안 모색 연속 토론회’를 여는 등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지금이 한국을 문화·예술의 강국으로 키울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 희망적인 생각이라도 안 하면 무엇을 붙잡겠는가.

이번 블랙리스트로 이 나라 예술가들이 처한 척박한 환경은 여지없이 드러났다. 블랙리스트가 오히려 전국의 예비 예술가들의 무기력을 깨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예술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문화예술계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국민들의 지속적 관심을 기대한다.

학생 칼럼

아무것도 하지 않을 용기

4번째 학기를 3주 다닌 후 중도 휴학을 결심했다. 그때 내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휴학하고 뭐하냐?”였다. 사람들은 아마 “아르바이트해서 여행갈 거야?”, “인턴할 거야?” 등 아주 다양한, 하지만 하나같이 자기계발 활동에 관련된 대답을 기대했을 것이다. 나는 선뜻 대답을 할 수 없었다. 내가 휴학을 했던 이유는 정말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다. 자기계발을 위해서도,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싶어서도 아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서,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였다.

휴학을 실행에 옮기기로 한 것은 수업도 중이었다. 그전까지는 내가 다른 흔한 대학생처럼 그저 과제가 싫고 나에게 주어진 무가치한 정도는 정도만 알았다. 개강 후 나는 내가 굉장히 나태하다고 느꼈다. 학교에 늦거나 아예 자느라 못 간 적도 많았고 겨우 간 날에는 스스로를 꾸역꾸역 강의실에 밀어 넣고 꿈을 꾸듯 멍때리며 시간이 흐르는지도 모르는 채로 보냈다. 사람도 만나지 않고 짜증스럽게 하루를 시작하기를 몇 주를 반복한 후에야 내가 예전과는 달라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런 무의미한 생활을 멈출 필요성이 있다고 느낀 후 곧바로 부모님께 메시지를 통해 말씀드렸다.

나중에 상담을 통해 안 사실이지만 나는



이지은
국문·15

“
달려가는 길
벽치게 느껴진다면
아무것도 안해도 괜찮아

“
심신이 많이 지친 상태였다. 대학생이 된 후 불필요했는지 모르는 일들을 겪었던 나는 힘없이 많이 흔들리고 있었다. 나의 상태도, 휴학을 실천에 옮기는 것도 모두 두려웠던 시점에 얽매는 “다른 사람들이 아닌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라고 말씀해 주셨다. 우리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라왔고 앞으로 경쟁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그러다 보니 휴식이란 개념이 어느새 “뒤처짐”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 같다. 휴학을 결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도, 누군가에게 쉬

고 있다고 말하기 두려웠던 것도 거기서 비롯되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에게 필요했던 것은 재충전의 시간이었다. 쉬지 않고 달리도록 스스로를 몰아붙여야 한다는 압박에 피곤했다. 한 순간도 무언가 쓸모 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때 몰려오는 불안감에 위축되었다. 결정적으로는 성격까지 달라지는 것 같아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두려움 반으로 시작했던 휴학으로 나의 감정을 돌봐줄 수 있었고 나의 상태를 인정하고 비교하지 않는 법을 고민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아니었다면 가질 수 없었던 시간들이 나에게 20대의 가장 소중한 고 뜻 깊은 성장의 시간들로 남아있다.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나 자신 아니겠는가. 존경하는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었다. 세상에서 제일 심각한 고민은 “나의 고민”이라고. 이런 저런 이유로 물어두었던, 세상에서 가장 심각했던 문제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없었다면 나는 아마 이번학기도, 그다음 학기도 시체처럼 보였을 것이다.

사람마다 쉬지 않고 갈 수 있는 정도는 다르다. 앞으로도 이렇게 자신의 속도대로 선물 같은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고 싶다. 휴식은 나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었다.

하는 것 아니야? 단순히 그들이 미처 배려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지만 앞서 말했듯 어떤 사정이 존재했을 수도 있다.

중종 이런 경우를 접하며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했다. 이런 모호한 문제의 가운데서 개인을 비난하기 이전에 문제상황의 스트레스를 낮출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서로 배려할 수 있는 차원이 된다면, 예를 들어 만일 침대의 방음시설이 좋다면 코를 고는 사람은 룸메이트를 배려할 수 있고 그도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숙박할 자유를 얻게 된다.

약 3주동안 5개국을 여행하며 많은 인종과 문화를 접했다.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가지각색의 세상 속에서 서로에게 관대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사람만큼 다양한 개인의 문제와 사정이 존재할 것이다. 이런 순간마다 이해의 선을 조금 높여서 서로를 배려한다면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성숙한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강주희(국문·14)

사설

학교 신뢰 진정으로 회복하려면

기획처 홍보팀이 지난달 온라인 악성 게시물 제보하기 메뉴를 신설했다. 본교와 구성원에 대한 악성 댓글, 허위 비방 등에 대해 고소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여기엔 정유라 부정 입학 사건 이후 사건과 관계없는 본교 구성원을 향해서도 비난과 비하 댓글이 쏟아지는 현재 분위기도 한몫했다.

학교가 ‘악플과의 전쟁’을 선포하자 학생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학교가 드디어 일을 한다’며 즐거워하기도 했다. 실제로, 2월24일까지 468건에 달하는 악성 게시물 신고가 접수됐다. 그간 이화인들이 근거 없는 비방과 여성혐오가 담긴 인신공격에 얼마나 시달려왔는지 알 수 있는 지점이다.

악성 게시물에 강력 대응해 온라인상의 분위기를 정화시키는 건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학내 구성원의 반응과 관계없이 학교의 이런 조처가 제 기능을 했는지 묻는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학교 측은 악성 게시물 대응 방침을 외부에 알린 이유에 대해 “악성 게시물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도 본교 관련 기사를 클릭하면 여전히 보기 불편한 댓글로 가득하다. 악성 게시물은 여전히 체감상 줄지 않았고, 제보 받은 게시물의 대부분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는 글이었다. 결국 대외적으로 경각심을 주는 데에도, 학교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에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타이밍도 좋지 않았다. 한 일간지는 지난달 ‘이대의 위기가 악플 때문?’이라는 칼럼을 실었다. 총장은 몇 달째 공식이고 교수들은 줄줄이 구속되는 마당에 ‘악플러’ 퇴치한다고 땅에 떨어진 명예가 되살아날지 의문이라는 게 골자다. 대외적인 이화의 이미지를 회복하려 시행한 방침이 오히려 외부에 비웃음거리로 비춰지지 않을지 우려된다.

학교가 온 힘을 다해 홍보해야 할 것은 ‘이화가 어떤 자정노력을 하고 있는 지’다. 그러나 정유라 사태가 터진 후 몇 개월이 지나도 학교의 대처는 지지부진하다. 비리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교수들 중 일부는 여전히 교수직을 보전하고 있다. 이 사태를 주도해서 해결해야 할 총장도 언제 뽑힐지 요원한 채 논의는 제자리다.

무너진 학교의 신뢰를 진정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학교가 이전과 달라지려고 하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악플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금주의 책



정희진처럼 읽기

- 정희진 지음, 서울: 교양인, 2014.

이 책은 평화학·여성학 연구자인 저자가 〈한겨레〉에 ‘정희진의 어떤 메모’라는 제목으로 게재했던 서평의 일부를 묶어 낸 책입니다. 책의 제목 ‘정희진처럼 읽기’에 걸맞게 저자만이 갖는 책에 대한 의미, 자신만의 책 읽는 방법, 독후감 쓰는 법 등을 안내하며, 79편의 서평을 ‘고통·주변과 중심·권력·안다는 것·삶과 죽음’이라는 5개의 주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독서를 ‘내 몸 전체가 책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좋은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책을 읽고 긍정적인 변화와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화인 여러분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화여대 중앙도서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금주의 책’은 “도서관 BEST 대출도서”에서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고 위치: 중앙도서관

0126~0224 중도 대출순위

제공=중앙도서관

순위	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1	비리도(飛雷刀) = 김류훈 정편 신무협 환타지 소설	김류훈	명상, 청어람	2000-
2	신과 함께 : 저승편	주호민	애니박스	2011
3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James, E. L.	시공사	2012
4	신과 함께 : 신화편	주호민	애니박스	2012
5	(만화) 토지	박경리	마로니에북스	2015
6	인천상륙작전 : 윤태호 만화	윤태호	한겨레	2013-2014
7	한국의 사찰벽화 : 사찰건축물 벽화조사보고서	한국 성보문화재연구원, 문화재청	문화재청 : 성보 문화재연구원,	2006-2014
8	미생 : 아직 살아 있지 못한 자	윤태호	위즈덤하우스	2012-2013
9	7년의 밤 : 정유정 정편소설	정유정	은행나무	2011
10	(김홍신의) 대밭해 : 대하소설	김홍신	아리샘	2007

여론광장

배려와 사정 사이

이번 겨울 바르셀로나 여행 중에 예산을 아끼기 위해 12인실 도미토리에서 숙박한 적이 있었다. 수많은 커뮤니티와 호텔 예약 사이트를 뒤져 선택한 숙소는 여행자를 위한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만족스러웠고 한 방당 인원 수가 많긴 했지만 개인 커튼으로 독립적인 공간을 가질 수 있어 낯선 사람들과의 생활도 그리저러 괜찮을 것 같았다.

뜻하지 않은 문제는 밤에 일어났다. 하루 종일 가우디 투어를 하고 쓰러지듯 도착한 숙소에서 스스로를 보채가며 겨우 씻고 잘 준비를 하고 누우니 숙소 앞 쪽의 까사바르요에서 들릴 정도의 큰 코골이가 들렸다. 옆 침대에서 흘러나온 소음은 아침까지 이어졌고 그렇게 누구인지도 모르는 룸메이트 덕에 나와 친구는 밤을 꼴딱 새게 됐다. 어찌 되었든 새로운 날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나갈 준

비를 하며 악몽같았던 지난 밤에 대해 불평했다. “코골이가 저 정도로 심하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1인실을 쓰거나 호텔을 써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숙사포처럼 불평을 늘어놓다가 문득 망설여졌다. “나는 과연 나의 존재가 타인에게 피해가 될 경우 나의 사정은 무시한 채 타인을 배려할 수 있을까?”

이처럼 개인의 사정과 타인을 위한 배려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문제들은 여행을 하며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 관객이 배우의 열연이 한창인 극장에서 끊임없이 기침을 해 관객들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린 일, 좁은 비행기 안에서 2m는 족히 넘을 것 같은 거구의 외국인이 좌우로 좌석을 침범하던 일 등.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쉽게 누군가를 비난한다. 기침이 심하면 극장에 오는 건 민폐 아니야? ‘뽀집이 크면 비즈니스 좌석을 끊어야